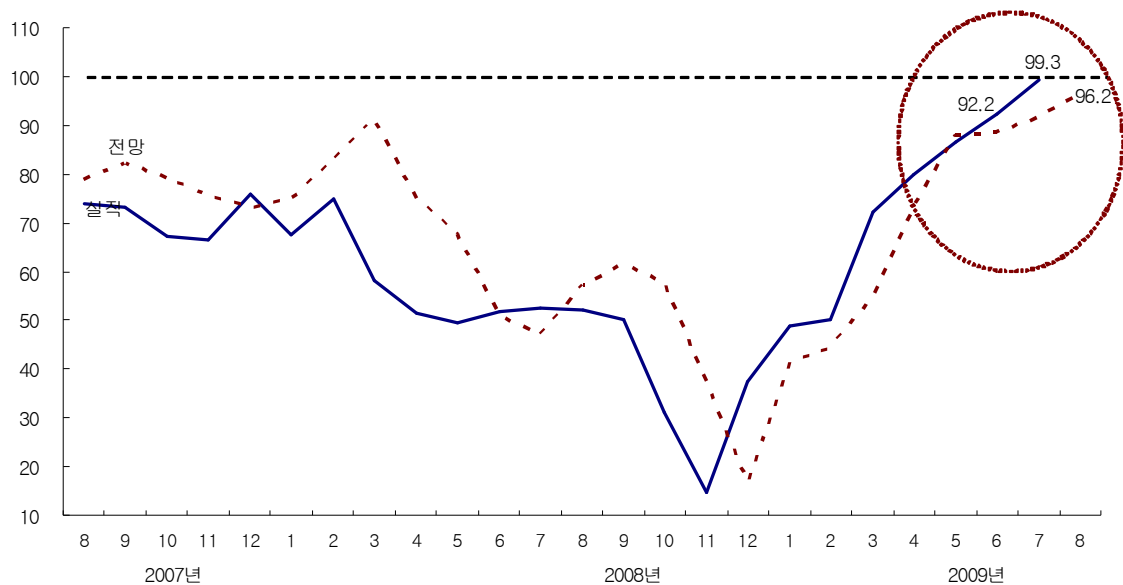


# 2009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7월 CBSI 99.3 기록, 기준선 근접. 단, 8월 전망지수가 96.2 기록해  
향후 지수 상승세 지속 여부 불투명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월에도 전월비 7.1p 상승해 상반기에 지속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수가 99.3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에 근접함. 그러나 8월 전망 지수가 하락해 향후 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7.1p 상승한 99.3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에 근접했으며, 2002년 12월(102.0) 이후 6년 7개월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또한, 작년 11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 CBSI 조사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계속해 이어감(기준에는 '05년 2~6월의 5개월 연속 상승세가 가장 긴 상승세).
- 7월 지수 상승은 지난 상반기의 지수 상승과 마찬가지로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공사 수주 증가현상이 시차를 두고 계속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그러나 8월 지수 전망치가 7월 실적치보다 3.1p 하락한 96.2를 기록해 향후 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하반기 공공공사 수주 및 기성의 상승세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공사 수주 침체 및 미분양 주택 적체 사태도 하반기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체감경기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 계속해 회복세를 지속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 업체가 전월대비 각각 22.0p, 8.7p 상승해 100을 넘어선 반면, 중소기업체는 12.3p 하락한 74.2를 기록해 체감경기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0.1	31.1	14.6	37.3	48.9	50.0	72.3	80.0	86.6	92.2	99.3	91.5	96.2
규모 별	대형	66.7	44.4	7.7	46.2	53.8	58.3	84.6	83.3	100.0	92.3	114.3	107.7
	중견	44.4	17.9	17.2	35.7	42.9	40.6	66.7	91.9	78.1	97.2	105.9	105.9
	중소	37.1	30.6	19.7	28.8	50.0	50.8	64.4	62.5	80.5	86.4	74.2	71.6
지역 별	서울	57.8	33.6	9.8	41.0	49.2	50.9	78.0	89.7	97.5	93.9	114.6	109.0
	지방	38.3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6.5	83.6	69.8	70.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22.0p 상승한 114.3을 기록하여 지난 5월 100.0을 기록한 이후 6월에 7.7p 하락한 92.3을 기록했으나, 한달만에 다시 기준선을 회복함. 대형업체 지수가 110을 넘어선 것은 '02년 12월(114.3기록) 이후 6년 7개월만에 처음임.
- 상반기 대형, 중소기업체에 비해서 지수 회복세가 늦었던 중견업체는 지난 6월 들어 지수가 전월비 19.1p 상승한 97.2를 기록해 체감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었고, 7월에도 8.7p 상승한 105.9를 기록해 '02년 8월(105.8기록) 이후 6년 11개월만에 기준선인 100선을 넘어섬.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12.3p 하락한 74.2를 기록해 그동안 지수 상승으로

지난 5월 80.5를 기록한 이후 6월에도 86.4를 기록했지만, 80선을 넘은지 2개월만에 다시 80선 아래로 하락해 체감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20.7p 증가한 114.6을 기록해 호경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업체는 지수가 13.8p 감소한 69.8로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20.7p 증가한 114.6으로 기준인 100을 넘어 경기가 호경기인 것으로 나타남.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2005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임.
  - 반면,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13.8p 감소한 69.8로 한달 만에 지수가 다시 70선 아래로 떨어져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8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7월보다 3.1p 감소한 96.2로 중견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는 7월과 같은 10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대형과 중소기업체는 각각 7월보다 6.6p, 2.6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가 5.6p 감소한 107.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0.6p 증가한 7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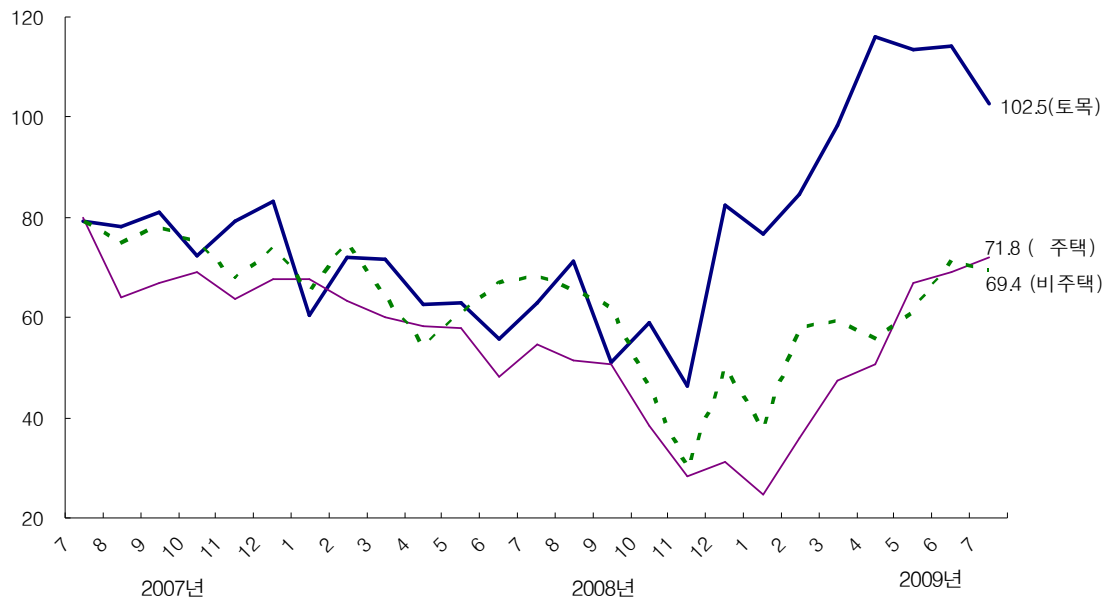
공사물량지수, 토목과 비주택 물량 소폭 감소함에 따라  
전월대비 3.4p 감소한 92.6 기록

- 공사물량 지수는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감소함에 따라 전월 대비 3.4p 감소한 92.6을 기록함.
  - 토목 물량지수는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한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지수가 전월 대비 11.7p 감소함,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102.5로 호조를 지속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2.7p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71.8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이 침체된 상태임.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9p 감소한 69.4를 기록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부진을 지속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견업체의 물량이 전월보다 증가하여 대형업체와 같이 지수가 100선을 넘은 반면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가 크게 감소하여 60선 이하로 떨어짐.
  - 대형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8.3p 감소한 107.1을 기록하였는데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8.1p 감소(135.7), 주택과 비주택 물량의 경우 각각 전월보다 24.2p, 16.5p 증가(주택, 비주택 모두 85.7 기록)함.
  - 중견업체의 경우 지수가 전월 대비 11.7p 증가한 108.8을 기록하였는데 토목, 주택, 비주택 물량 모두 증가함(각각 전월대비 11.7p, 6.3p, 3.1p 증가).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4.9p 감소하였는데 토목과 주택 비주택 부문에서 모두 20.0p 이상 감소함(각각 전월대비 24.5p, 22.9p, 20.4p 감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2.6	107.1	108.8	57.1	107.0	64.5
	전망	91.8	100.0	111.8	59.6	105.6	64.7
토목	실적	102.5	135.7	106.3	59.3	117.6	73.9
	전망	97.1	107.1	118.8	60.7	108.3	74.1
주택	실적	71.8	85.7	87.5	37.7	87.3	41.5
	전망	66.6	71.4	81.3	44.3	75.2	47.0
비주택	실적	69.4	85.7	75.0	44.0	84.0	40.5
	전망	70.6	71.4	93.8	43.4	80.9	48.4

주 : 실적은 2009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8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1.2p 감소하고 지방업체도 전월 대비 8.7p 감소함. 서울과 지방의 지수가 각각 107.0, 64.5로 서울업체는 호조를 보인 반면 지방업체는 물량 침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의 경우 6월보다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16.6p, 9.6p 증가했으나, 토목 물량지수가 11.0p 감소하여 전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2p 감소한 107.0을 기록함.
  - 지방업체의 경우 모든 공종의 물량지수가 감소하였는데 토목이 전월 대비 7.7p, 주택이 18.4p, 비주택이 20.2p 감소하여 전체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8.7p 감소한 64.5를 기록함.
- 2009년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월 실적치 보다 0.8p 감소한 91.8로 전망되었는데, 토목과 주택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7월보다 5.4p, 5.2p 감소한 97.1과 66.6로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7월보다 1.2p 증가한 70.6으로 전망함.

**인력/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관련 상황 다소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자금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자재비 상황이 작년 상반기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공공공사 수주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해 국내 건설수주가 6월까지 전년동기비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21.6, 120.0을 기록하며 수급 상황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도 95.0을 기록해 인력수급 상황이 양호함에 따라 인건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자재비 지수가 88.7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아직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공공부문의 선급금 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6월에 104.3을 기록했는데, 7월에도 104.9를 기록해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조달 지수도 전월비 11.6p 상승한 108.2를 기록해 '06년 11월(102.2기록) 이후 32개월만에 기준선을 넘어서며 상황이 개선됨.

####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104.9	107.1	105.9	101.1	104.8	98.7
		전망	98.0	100.0	94.1	100.0	96.1	94.5
	자금조달	실적	108.2	121.4	100.0	102.2	113.2	94.5
		전망	100.2	114.3	90.9	94.3	104.9	87.7
인력	수급	실적	121.6	142.9	117.6	101.1	128.3	98.7
		전망	116.5	128.6	114.7	104.5	117.6	102.1
	인건비	실적	95.0	100.0	100.0	83.3	98.9	82.7
		전망	95.2	100.0	100.0	84.3	99.4	82.6
자재	수급	실적	120.0	128.6	117.6	112.5	119.9	107.4
		전망	115.4	121.4	114.7	109.1	114.0	104.8
	비용	실적	88.7	92.9	94.1	77.5	90.8	79.1
		전망	88.2	92.9	94.1	76.1	91.9	76.4

주 : 실적은 2009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8월 예측지수임.